

네발 달린 오리를 보셨나요?

최근 영국에서 태어난 네발 달린 오리 '스텀비'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월 초 태어난 네발 달린 오리는 건강하게 자라 처음 수영하는 장면이 '데일리 메일' 등 신문지상에 오르는 등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있다. 스템비는 햄프셔의 뉴 포리스트에 있는 와라위 오리농장에서 첫 공식 수영을 시작했다. 이 오리는 주인 니키 재너웨이(43)가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동용 풀에서 15분 간 헤엄치며 놀았다.

재너웨이는 "매우 감격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매일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이미 유명인사가 된 스템비는 '리처드 앤 주디쇼'에 출연했으며, ITV 모닝쇼에서 모습을 드러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당초 네발이 달린 채 태어난 이 오리는 주인조차도 정상적으로 성장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스텀비는 지난 1월 햄프셔의 뉴 포리스트에 있는 와라비 오리농장에서 낳은 45개의 알 중의 하나였다. 알이 부화된 2월 7일 재너웨이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리의 다리가 너무 많았다. "하나, 둘, 셋, 넷."

스텀비는 먹는 것은 정상적이었지만, 다른 오리들에 비해 성장이 빠르지 않았다. 다행히 스템비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내고 잘 자

랐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오리에 비해 1인치 정도 작다. 2개의 여분의 다리가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네 발 달린 오리 스템비는 발 하나가 울타리에 걸려서 잘리는 바람에 이제 발이 세 개만 달

려있다. 스템비의 돌연변이는 매우 진귀한 케이스여서 전 세계에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002년 호주 퀸즐랜드에서 제이크라 불린 다리 4개 달린 오리가 태어났지만 즉시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네발 달린 오리 '스텀비' 영국에서 화제

